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30분 7시
 오전 (2부) 7시 30분 10시
 오후 (3부) 12시
 오후 (4부) 2시
 금요일예배 (1부) 18시 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 30분 7시
 오전 (2부) 10시
 오후 (3부) 2시
 저녁예배 7시 30분
 수요일예배 (4부)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4년 3월 16일 (제 733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월요일 예배 위치 및 인터넷 생방송)



병 우 칼럼

악보다 선이 많다

얼마 전에 택시를 탄 일이 있었다. 나는 기사 분에게 교회에 다니라고, 그래야 천국에 간다고 전도를 했다. 그런데 기사 분이 하는 말이 "요즘 목사들이 엉망이고, 나쁜 목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솔직히 기분이 별로였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사양반, 택시 기사 중에는 강도도 있고, 나쁜 사람도 많습니다. 여자들에게 못된 짓 하는 기사도 있고, 길을 좀 모르는 것 같으면 이리저리 돌아 요금을 바가지 쳐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기사가 더 많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응급실로 실어다 주는 기사 분도 있고, 노인네들에게 친절한 기사분도 있고, 거리 질서를 잡아주는 기사도 있고 말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좋으면 더욱 좋겠지만, 더러 분이 안 되는 목사들이 드러날 뿐, 선한 목사가 많습니다."

어디 이 말이 목사와 택시기사에만 해당되는 말일까? 세상에는 악보다 선이 더 많이 존재한다.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보다 많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 약자를 대변해주는 사람, 조용히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다만 악한 자의 행위가 드러나고 크게 보도되기 때문에 악한 자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일 뿐이다. 어떤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침묵하는 수가 많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니 크게 들리는 경우도 같다. 꼭 말하고 싶은 것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고, 어두운 곳을 찾아 빛을 밝히는 주의 종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양떼를 위해 자신을 버리고 자원하여 좁은 길로 가는 목자들이 더 많다. 하얀 종이에 검정 잉크 하나 떨어졌다고 그것을 검은 종이라 부르려 심하지 않은가! 세상은 아직 선한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워 살만하다. 굳이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지 말라.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선한 목자는 누구일까?

지난 3월 7일, KBS88체육관에서 거행된 제22회 예수중심신학교 졸업식에서 총회장 목사님은 '선한 목자'를 '순종하는 목자'라 정의하셨다.

"연료한 어느 목사가 제자들을 발에 총 집합시켰습니까. 100여명이나 되는 제자들은 무슨 일인가 하고 모였습니까. 노(老) 목사는 아무 말 없이 무릎 하나 잡더니 거꾸로 심으며 '이렇게 무릎 100개씩 심어 보라.' 하고는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무 심는 걸 모르는 것 같다. 무릎 거꾸로 심으면 어찌나?'", '세월은 어쩔 수 없다. 우리 목

의 손을 잡고 사무실로 들어갔고, 노 목사는 그를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단에 있는 목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토론회나 상담이나 의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순종, 100%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이 나오니다. 그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고는, 덧붙여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습니다. 만일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종에게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 집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물을 떠다 아귀까지 채우라고 했고, 그것을 연회석에 내다 주라고 했습니까? 바로 종들입니다. 그들은 순종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에게 시켰더라면 포도주가 필요할 마당에 뭐하는 것이냐며 따지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나의 목회 30년 동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 달지 않았고, 가족과 의논하지 않았고, 누구와도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그저 순종했습니다. 다 이해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고, 예루살렘 교단을 세우셨습



제 22회 예수중심신학교 졸업예배(2014년 3월 7일, KBS88체육관)

사님도 늙으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 등등. 개중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목사님을 급히 부르는 제자들도 있었습다. 그러거나 말거나 노 목사는 뒤돌아보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서야 노 목사가 다시 발에 나왔습니다. 돌아보니 제자들이 무릎 다 심어놨는데, 99명이 다 바르게 심어놓았습니다. 스승인 목사가 하리는 대로가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대로 심어놓은 것입니다. 100명중 단 한명만이 지시한 대로 거꾸로 심어놓았습니다. 노 목사는 입을 열었습니다. "무는 너희처럼 심어야 수확할 수 있다. 허나 너희에게 옳다 할 수 없음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승 말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하고는 거꾸로 심은 한 명의 제자

말씀에 순종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어쩌면 베드로를 능가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이 부자 청년을 지켜보면 제자들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좇았다'고 하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배배나 받되 핍박을 견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막10:29-30). 이는 이혼하고 가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을 두고 그들과 의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아내와 의논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이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이혼이나 지식, 아집이나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사55:8-9). 그 분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할 이유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다 보면 이해의 폭이 점차 넓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성도들도 여러분들의 말에 순종할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 100% 순종하여 크게 쓰임 받는 종이 되길 바랍니다.

신영서

jesus7857@gmail.com

이초석목사 베네수엘라 집회
 장소: 미란다 일사: 2014년 3월 25일(화) ~ 4월 3일(목)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롬9:14~21)



자기 것을 찾아야 성공하고 행복하다

저는 주의 종이 되기 전에 취미 삼아도 자기를 만드려 이전에 자주 다녔습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면 저는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거기에 알맞게 흙덩이를 펴고, 쓰임새에 맞게 모양새를 만드셨습니 다. 로마서 9장에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했습니다. 제가 그릇하나 만들 때도 그렇듯 계획하고 생각해서 만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손수 하나하나 만드실 때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만드셨겠습니까? 성격, 재능, 인물 등을 당연히 가장 적합하게, 가장 좋게 모양새를 만드셨을 게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씨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잠16:4).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신의 것에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고, 시기질투를 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의 것이 부러워 그것과 같게 되려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집을 잘 지키는 개가 있었습니다. 밤이면 우렁차게 짖으며 도둑의 범접을 막는 충성된 개였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그 개 말고도 수탉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닭은 새벽이 되면 지붕에 올라가 큰 소리로 울어 주인을 깨웠습니다. 그러던 주인이 기지개를 펴고 나와 그 닭을 보고 칭찬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우렁차다 느니, 고맙다느니... 개는 주인이 고가웠습니다. 밤새 잠도 안자고 도둑을 지키는 자기는 보는 동 마는 동 하니... 그래서 개는 결심합니다. ‘나도 연습해서 저 닭처럼 새벽을 깨우리라.’ 개는 며칠을 몰래 연습하고는 어느 날 아침, 지붕에 오르려는 닭을 밀치고 지

양껏 먹을 수 없고, 국 대접에 간장 담아 올리면 우스운 꼴 나는 겁니다. 성경에도 닭을 부러워하다 죽음을 부른 개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에게 맞는 그릇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는 다윗의 그릇을 넘겨다보았습니다. 거기에 자기에게 없는 용맹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백성들이 찬사를 보냅니다. 사울은 부럽기도 하고 시기심도 발동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상해진 개를 죽인 것처럼, 토기장이인 하나님도 이상해진 사울을 깨트리셨습니다. 토기장이는 토기를 깨트리



총회장 이초석 목사

권이 있기에 문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의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을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렘18:6).

심계명 중 열 번째 계명이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왜 남의 것을 탐낼까요?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남의 여자과 바람을 쐬니까? 내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남의 집 자식 이야기를 합니까? 내 자식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성형을 합니까? 내 외모에 만족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직장을 옮기니까? 일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입니다.

성형 이야기가 나오니 얼마 전 가슴 아프게 본 기사가 생각납니다.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에게 딸이 있었는데, 딸이 아버지의 우락부락한 얼굴을 쏙 빼닮은 모양입니다. 딸은 그것이 쏙 빼닮았습니 다. 그래서 성형하고 싶어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아버지는 그 딸 소원을 들어주려고 점심을 굶어가며 막노동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딸이 수술 중에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평평 우는 겁니다. ‘그렇게 소원이라고 해서 수술 시켜준 건데’ 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량품을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딸이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정말 안타깝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맞는 일과 직업, 배필과 옷, 신발이 있습니다. “왜 나는 간장종이지, 저렇게 큰 장독도 있는데.”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간장종이는 비록 작지만, 자기 때문에 매일 밥상에 올라 주인얼굴을 매일 볼 수 있습니다. 큰 장독은 커서 많이 담

기는 하지만, 주인 얼굴은 어쩌다 한번 볼까말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천 냥이라도 눈이 구백 남이라고 합시다. 눈이 귀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 눈이면 냄새는 어떻게 맡고 소리는 어떻게 들습니까? 굳은살이 박혀 아픈답진 않지만 발이 있어서 걷는 겁니다. 발이 “왜 나는 신발 속에서 갇혀 살아야 하나, 왜 냄새가 나는 거야?” 하고 발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찌 됩니까?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찌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찌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고전12:15-17). 하나님은 다 필요해서 맞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잔디가 푸르게 보이고, 남의 떡이 크게 보이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남의 일과 직업이 멋있어 보이고, 남이 입은 옷과 남의 아내나 남편이 좋

아 보이는 것도 다 욕심 때문입니다. 송충이에겐 솔잎이 가장 좋고, 뱀새가 황새 흉내 내면 가랑이만 찢어집니다. 제가 지금 운명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외모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것을 찾으세요. 자기 적성, 자기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누에는 뽕잎을 먹고 산다**

게 맞는 직업을 찾으세요. 없다고요? 그럴 리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고, 자기가 낳은 알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타조도 달리는 재주만은 탁월하다고 읊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에게 달란트가 없겠습니까? ‘CEO 예수’의 저자인 로리베스 존스는 유난히 맞지 않는 전업주부를 버리고 작가로 변신해서 최고의 작가가 된 사람입니다.

또한 더불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자식을 통해 대리만족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 못했으니 내 자식은 공부 많이 시켜서 집사, 의사 시켜야지’, 이리저 말라는 겁니다. 자식은 결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아이의 능력, 잠재력, 본성, 기질 따위를 잘 고려하고 그 아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어려서부터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부모 마음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키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명문대학을 나온 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자신의 적성과 관계없이 진학했다는 아이가 반을 넘습니다. 비록 그들이 명문대학은 나왔지만 인생이 행복할까요? 끝까지 그 일을 할까요? 억지충항은 힘든 것인데 말입니다.

자기가 가진 달란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하면 즐거운 것이 있고, 하면 유난히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적성이요, 천직입니다. 그걸 하면 됩니다. ‘주신 분량대로 일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명심합시다(고전7:17). 할렐루야!

너는 세계유일한 사람이다 너의 개성과 달란트를 찾아라

봉 위로 호기롭게 뛰어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동트기를 기다려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가만히 듣자니 닭 소리도 아니고 개 소리도 아닌 것이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마당으로 나가 그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보니 아니, 지붕 위에서 개가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 개새끼가 뭐하고 있는 거야? 집안에 우환이 끼려고 저러나?’ 놀란 주인은 당장 머슴들을 불러서서 저 미친개를 끌어내려 없애버리라고 명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개처럼, 남의 것만 탐하다 되는 꼬락서니 없이 죽도록 고생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하지만, 무가 배추 안 되고, 장미가 백합 안 됩니다. 김연아가 장미란이 될 수 없습니다. 다 자기 것이 있습니다. 왜요? 토기장이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종지에 밥을 담을 수는 있지만, 제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절제된 본능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욕구를 넣어 주셨다. 그 중에 대표적인 3가지를 들자면, 식욕, 성욕, 명예욕이다.

식욕은 당장 살아남는데 절대적인 제1욕구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어미 젖꼭지를 빨다. 식욕은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다. 살아가다가 이 본능을 잃어버리면 거식증에 시달리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접어야 한다.

성욕은 제2의 본능이다. 성욕이 없다면 자신의 생존은 가능하나 후손을 이을 수 없어 종족번식이 안 되고, 대가 끊겨 인류가 멸망의 위기를 맞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남녀 공히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자동적으로 왕성한 성욕을 느끼게 되고, 이는 번성의 원천이 된다.

제3의 본능은 명예욕인데, 인간은 누구나 남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갖는다. 이 명예욕이 인간사회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왔다. 인간에게 명예욕이 없다면 아마 지금도 구석구석에 처박혀 살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3대 본능이라 할 수 있는 식욕, 성욕, 명예욕은 아주 중요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다. 문제는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 왜냐하면 부족하면 자신에게만 문제지만, 지나치면 남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절제되지 않는 물이나 불이 큰 재앙을 가져오는 것처럼, 절제

되지 않는 식욕, 성욕, 명예욕 또한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주변과 나아가서 인류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되었다.

식욕이 지나쳐 비만으로 300~400kg까지 되어 한 번 들어간 방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간 사건들을 종종 접하게 된다. 인생도 망가지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다가 단명 하는 것을 보아왔다. 성욕도 지나치면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을 저지르고 다닌다. 한 마디로 짐승 같은, 개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고 들었다. 명예욕도 지나치면 서로 헐뜯고, 다투고, 심지어는 남을 죽이고, 전쟁도 불사한다. 돼지도 자기 위의 80%, 학과 거북이는 50%를 채우면 절제한다. 인간은 110%라야 '참 잘 먹었다'고 숨을 몰아쉬면서 손가락을 놓는다. 음식뿐 아니다. 돈, 명예... 패사에 그런 식이다.

다윗도, 그의 아들 압논도 음욕을 절제하지 못해 엄청난 일을 당했다. 루시엘의 타락은 지나친 명예욕이다. 거머리처럼 다고 다고 한다. 그리고 아람도, 느브갓네살도 그 죄임에 넘어갔다.

절제는 아름다운 것이다. 요셉의 절제가 만세에 빛나듯이, 예수님의 절제가 온 세계를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인 이 욕구를 주시고 적절히 절제하며 유용하게 쓰기를 원하신다. 적절한 식욕, 절제된 성욕과 명예욕은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고,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할 것이다.

이시대 목사

장애인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도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정상적인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정상인들의 관념은 여전히 동정심과 함께 거북스러운 존재들이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비교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열린 것 같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순수한 눈으로 말하는 어린 아이들의 말소리가 가끔은 너무도 상처가 됩니다. "아저씨 왜 저렇게 절어? 우리와 달라. 이상해..." 아이들은 죄가 없으나 그 말은 아픔입니다.

이미 아셨겠지만,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이런 저를 바보로 만들지 않기 위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등에 업고 날마다 2km를 걸어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머리에 팔 것을 이고 다니시며 고생하시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기르시느라 평생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토록 고마우신 어머니를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제화장장에서 마지막으로 관을 보는 순간 한없이 소리 내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저를 바보로 만들지 말고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길고 긴 세월을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저를 공부시켰습니다. 왜? 정상인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데, 하물먼 장애자가 교육을 받지 않

으면 세상에서 천덕꾸러기가 된다고.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총회신학도 졸업하였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장애를 뛰어 넘어 웹상에서 기도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두멍 네이버 블로그가 있고, 블로그에 들어와서 본 사람들 수가 십만 명이 되어갑니다. 둘째로 행복한 당나귀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물론이고 프로그래밍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고장 난 것도 고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독학하면서 한두 대씩 고장이 났지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배움을 통해 소통하고 배움을 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휴대폰 문자와 블로그와 카카오톡에 기도 글을 올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혹은 장애를 가진 분들도 무엇이든 배우십시오. 또 정상인이려면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배워야 사람이 됩니다. 배워야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얻더라"(잠24:5).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딤후3:14).

김창섭

:: NewYork Report::

하나님의 아들

열마 전 미국에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영화 선 오브 갓(Son of God)이 개봉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난 소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외치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환영하는 중 한 유대인이 "빨리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른 편에 못 박혀 있던 죄수는 "정말 메시아거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며 그분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온통 세상의 것들뿐이었습니다. 물질의 풍요에 대한 기대,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를 구원해줄 것이라는 기대, 죽을 목숨을 살릴 것이라는 기대.

예수님께서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인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합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율법을 갖대로 들이대며 공격합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데 눈이 멀어 자신들의 신앙의 핵심이며 본질인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유대

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저 시대에 살아가면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의 병고치는, 가난에서 해방시켜주시는 권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위험은 없는가 생각해봅니다. 나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서 내 신앙생활 자체가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그 방식 지키려다가 정작 하나님은 놓쳐버리는 순간이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있나. 내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들과 달라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기도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자신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빌라도의 아내가 조상신(ancestor)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오버랩되어 나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최선의 열심을 다하면서 자신을 나름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저 때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디서는 지나가는 소에게 절하고, 어디서서는 가련 길을 멈추고 때 맞춰 메카의 방향을 향해 절하고, 심지어 어디서든 인생의 경이로움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 본체시나, 종 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산재 물로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때문이요. 당신과 나 때문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명령하시고 들러 올라가셨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에 요한을 찾아오신 주님은 곧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또 "처음과 나중"이라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시작과 끝"이라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속하셨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의 구원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은혜로 단번에 우리 죄를 속하여 주셨음을 믿는다면 그분을 전할 생가에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전할 차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김슬아

gratiaseul@gmail.com



귀를 기울이세요

영국 런던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로 자랐으며, 오갈 곳이 없어 기구 공장에 들어가 심부름을 하는 등 갖은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일이 없는 날은 가족도, 아는 사람도 없어 런던 길거리를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한번은 거리를 지나가다 한 교회에 무심코 들어가게 되었고, 교회 뒷자리에서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후 그의 삶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했고, 그의 입술엔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직공으로 일하던 가구 공장의 사장이 되었고, 55세 되던 해엔 자신의 가구 공장을 창간한 뒤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에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 찬송사를 지었습니다. "이 몸이 소망 무연가 우리 주 예수께 일세 / 우리 주 예수 뉘에는 믿을 이 아무도다 / 굳건한 반석이니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심코 들어간 교회, 우연히 참석한 예배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다. 이 땅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이유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신학주전도사

blessedmrb@naver.com

가장 좋은 나이

흔히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 “공부도 다 때가 있는 거야.”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질문 하나 할게요. 공부하기 가장 좋은 때는 몇 살일까요?

8년 전 대학생 때, 집 근처 야학(야간학교)에서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업은 저녁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교실은 단 두 개, 학생은 열 명 남짓,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가르치는 곳이었지요. 선생님은 20대 대학생들, 학생은 450대 분들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는 밤마다 학생이 되었지요.

공부 자체나 의욕, 눈빛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다면 서울대 수석은 때어 놓을 당상인 분들이었는데, 실상은 열을 가르치면 열을 흘라랑 까먹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대로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부 수첩을 만들어서 출퇴근할 때 암기하고, 삼크대 앞에 영어 단어를 붙여놓고 설거지하면 수도 공부하는 놀라운 노력을 보여주

셨지요.

하루하루는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처럼 머리에 채워지는 것보다 밖으로 새 나가는 것이 더 많아 보였지만, 1년, 2년, 거북이 같이 느린 시간을 통과해내고 나니 그 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중학교, 고등학교의 졸업장이 두 손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하지 못했던 공부에 대한 아쉬움은 그걸로 충분히 풀렸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아니요?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는 목표를 이뤄낸 그분들은 대학이라는 더 큰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 그게 정말 가능할까(?) 했던 제 의문에 대신 대답하듯 어떤 분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문학과에, 어떤 분은 국문학과에 입학하셨지요. 최근에 그 때 같이 수업했던 중등반 학생 중 한 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8년 전, 배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요. 그리고 세 장의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졸업장, 한 장은 유아교육자격증, 그리고

나머지 한 장은 그 분이 지금 맡고 있는 유치원 아이들 사진이었습니다.

처음 야학에 오셨을 땐 다들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도리어 그 때가 공부하기 딱 좋았던 나이라고 추억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졸업하는 시간, 10년. 그보다 더 짧은 시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냈지요. 생각할수록 대단하지 않나요? 제게 공부하기 가장 좋은 때가 몇 살인 거 같으냐고 묻는다면, '지금!' 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딱 지금이, 무엇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이지요. 80세의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던 나이였던 것처럼요. 혹시, 하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일단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우리의 나이는, 그것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니까요.

신은혜

dopal0203@naver.com

Good News

어린 시절 그림책으로 읽었던 트리나 폴러스라는 작가가 지은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배가 고파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나뭇잎을 갉아먹다가 ‘그저 먹고 사는 것이 삶의 전부야 아닐 거야.’ 라는 생각에 골몰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척 바쁘게 기어가고 있는 애벌레 때를 발견하고 따라 가보니 끝이 하늘에 닿아 있는 거대한 기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찾으려는 것이 어찌던 저 곳에 있을지도 몰라.’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밝고 밝히며 천신만고 끝에 거의 기둥의 끝까지 올라갔

데, 바로 위에서 조그맣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곳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 “조용히 해, 이 바보야! 밑에 있는 놈들이 다 들겠네. 우린 지금 저들이 올라오고 싶어 하는 곳에 와 있단 말이야. 여기가 바로 거기야.” 애벌레는 깨닫고 기둥을 내려와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마리의 애벌레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고치가 되어 나비로 다시 태어나 하늘을 날며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사랑의 씨앗을 나르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들의 이야기 같아서 더 큰 깨달음을 줍니다. 자신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 가짜 소망을 위하여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

나 그것을 취하고 나서도 여전히 밀려오는 공허함은 세상의 부귀영하나 쾌락으로는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바쁘고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 일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이 땅의 삶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죽은 뒤의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일이 진실로 중차대한 일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고후4:18).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복락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혼전순결

남녀상열지사(男女相與)와 자유연애가 판치는 요즘 세상에서 ‘혼전순결’이라는 말은 이미 촌스럽고 낡은 의미로 퇴색되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결혼과 결혼을 통한 가족의 탄생이라는 성스럽고 축복된 과정이 있기에 ‘혼전순결’의 의미는 되새겨져야 마땅하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은 이 빠진 돌맹이가 없어버린 조각을 찾기 위해 이 조각 저 조각 맞춰보는 것에 비유된다. 이처럼 자신의 짝을 쉽게 찾기는 어렵고 짝이 세상의 이치다. 그러다 ‘이 사람이 진정 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를 아끼고 지켜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짝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온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배려심이 중요하다. 반복된 만남을 통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며 상대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배려를 배우고,

소통의 법을 배우며 하나의 합일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기까지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남녀의 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육체적인 본능이나 소욕에 휩싸이기 쉬운 나이이고, 정열이 솟구치는 나이이다 보니 이성으로 본능을 제압하기가 쉽지 않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인 까닭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본능과 소욕을 절제하고 상대를 위해 배려하며 이성을 유지하기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인생은 잠시 동안의 불장난이 아니다. 남녀가 결합하는 것은 곧 가정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이면 안 된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이 있다면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

겠는가.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 인생을 망치는 어린 자녀들을 많이 보아왔다. 덜컥 겁심이 되어 어린 나이에 감당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자들을 봤다. 그들에게 남는 것은 늦은 후회와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감뿐이다.

아름다운 것은 지켜줄 때 더욱 빛이 난다. 꽃을 예쁘다고 꺾는 것보다는 그대로 보며 꽃을 지켜줄 때 그 아름다움은 오래 간다. 아름다운 사랑은 서로가 지키고 지켜줄 때 빛이 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조건 남녀교제를 막으라고 하지 말고, 부모 된 입장에서, 세상의 선배로서, 그리고 신앙의 연배자로서 절제된 교제, 아름다운 교제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설계하도록 하자.

오자유

oh.free@hanmail.net

공감하십니까?

반기문 UN사무총장의 메시지를 옮겨 봅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視野)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많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학력(學力)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判斷力)은 더 모자랐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수명(平均壽命)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意味)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멀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靈魂)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原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偏見)을 부수지는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들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3:10)

악을 잡는 사람은
잊어버리기도 쉽다
악을 잡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악을 일부로 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악을
기쁨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릇이 변치 아니함을
증보하시려고
그일에 영세로 보증하셨다
(히브리서 6장 17절)